

학생식당 수익금

학생들의 몫이다

밥값이 오르려 한다. 이것 때문에 각 학생회 회장들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한 것으로 안다. 3백원이 그토록 컸나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상분의 액수에 연연하진 않았으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3백원에 대한 가치가 또 희석되거나 앓을까하는데에 있다.

재작년인가 그때도 1백원에 대한 인상분의 약속으로 음식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나아진 것 아무것도 없...

물론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도 변함없이 음식의 질, 다양성을 내걸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입주의 약속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다. 그리고 질과 함께 그들의 양심도 울렸으면 한다.

또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양심을 우리가 율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주들에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병이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끝으로 학교식당은 입주것도 학교것도 아니라 바로 학생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고, 그러기에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수익금은 학교로 다시 환원되어야만 한다. 그 환원의 방법이 장학금이면 음식의 질속에 포함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몫을 찾아야만 한다.

윤효노

(자연대 생화학과)

이번호부터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가려가는 통약인의 인터뷰 컬럼, '오늘날'을 신설합니다. '통통 칼럼'과 '주주' 나기에 별 별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8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 바랍니다. 하이텔(DGU9번방, ID: dpress메일)과 여론팀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전·노 시면론 경계할때

지난 26일 있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사법부는 사형과 22년 6개월의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것은 80년 5월 광주와 13년간의 군사정권 속에서 민주화를 부르며 싸워온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막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신문과 잡지에서 전·노씨의 사면과 관련한 예측이 바로 그것이다. ‘외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사면에 관련한 여론 조사’ 등 (모두 1년전 박계동씨의 비자금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의 분노와 울분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왜 그럴까? 상당량에 기여한 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하여는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집권당, 지난 8·15 사면에서 민주화를 가로 막았던 인물들의 대대적인 사면, 한층 탄압과 관련한 공간 분위 등이 전·노씨의 사면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4·19 시기 사회의 역사속의 한 순간을 되돌아보며, 그 관속에서도 자유당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시기에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전·노씨를 포함한 내란·군사반란의 주동자들이 사법부의 최종 선고에 따라 발을 받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밝혀지지 않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삼청교육대·광주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필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에, 후대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잘못된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자백시켜야 하고 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용환 (법정대 행정학과)

미숙한 분리수거로

동약은 쓰레기 천지

우리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의 실시를 알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비교적 어머니들이 분리수거를 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만 캠퍼스내 식당, 매점, 자판기, 휴게실에서 현실은 어떠한가?

썩지 않는 캔, 유리병, 프라스틱 병, 종이컵 등을 제외한 썩는 일반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일정한 수 수료를 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매립이 된다. 그러나 검사사 반드시 분리수거하여야 할 품목이 섞여 있으면 1차위반시 10일

간 반입금지, 2차위반시 1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 서울캠퍼스는 1주일에 2~3회씩 15톤 컨테이너가 김포매립지로 반출하는데 이미 2차 위반 1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받았다. 학기중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하여 미처 분리가 안된채 매립지로 나간 것이다.

이미 서울 캠퍼스는 한계를 넘어서 인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내내 과학관 뒤 소각장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쓰레기더미를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속사정을 모르고 왜 버려 치우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갖겠지만 분리수거가 안된채 매립지로 반출하면 3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3개월간 반입금지 조치를 당한다면 정말로 대책이 없다.

우리는 분리수거함을 확인도 안하고 마구 버거나, 유리병을 집어던져서 분리수거함안에는 깨진 유리조각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분수대와 도서관 앞에는 노구의 할아버지가 살고 지나가자마자 버려지는 공조들을 매일 무감각하게 보아왔다. 특히 우리대학은 타대학에 비하여 자판기와 매점이 많아 유난히 쓰레기가 많은 편이다. 다행히 생활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번 2학기부터는 많은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은 우리 구성원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에서 면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학생 개개인들이 한부분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학생회, 교수회, 직원노조, 생활협동조합들이 함께 노력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계현 (관재과 계장)

예술관 계단공사

학생배려 아쉬워

개강을 하고 한 주가 지났다. 학기 초마다 겪게 되는 불편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것인데 이제는 답답하기만 하다. 몇 번이고 옮겨다녀야만 하는 강의실과 학생과의 약속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시간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교수님... 개강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한 학기를 시작하는 다짐은 이런 학교생활로 한 주를 보내다 보면 한 걸 쪼고 만다. 역시나 이번 학기에도 그러한 상황은 되풀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번 학기에는 방학때부터 이루어지던 공사가 개강한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더욱 부추겼다.

동국관과 학술문화관을 이어주는 계단이 제각각이고 불편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오래전된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바쁘게 학술문화관으로 수업을 들으러 가던 나는 그 계단의 반쯤을 내려오다 다시 돌아야만 했다. 계단 아랫부분에 시멘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공사 때문에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가던 많은 학생들이 예상 밖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 그 중에는 돌아가기가 귀찮아 언덕을 위험하게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물론 작은 불편이라고 그냥 참고 넘기라고 말한다면 크게 할 말 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방학 중이나 휴일중에 공사를 마치는 것만이라도 '공사중'이라는 작은 뜻이라도 세워 줄 수 없었는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학교의 작은 배려가 틈틈이 아쉬웠다.

이선영 (사과대 사회학과)

독자시

비닷가에서

김도영 (인문대 영문과)

파아~ 파아~ 저놈의 파도소리 지겹다. 어젯밤에도 오늘밤에도 맨 마찬가지다.

내가 아는 너도 두손 내밀면 잡힐 듯 하던 어제와는 다른데

내가 아는 나도 혼자 잘 견딜수 있던 어제와는 다른데

저놈의 파도는 왜 이리도 지겨웁게 치는지, 그럼에도 떠나지 못하는 나는 어쩌나구.....



동생애

- ▶ 동생애 비주류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매도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 동생애, 이성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일 뿐이다. ▶ 용기있고 자유로운 선택 ▶ 동생애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 추하지만 매우 자연스럽다. ▶ 이성애는 법칙을 가장한 권위적 압력에 불과하다. ▶ 동생애를 느껴보지 못했다면 매끈한 사람. ▶ 이성애는 허전하고 양상은 버렸다. ▶ 관습적인 많은 이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찬성! ▶ 용기를 내시다. ▶ 사랑이라는 건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그들의 자유일 뿐이다. ▶ 그대, 어쩌면 귀족 서투름을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 평범함을 거부한 이들이여, 그대 이름은 '용감무쌍' ▶ 사랑할수 있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에서 촉박발아야 한다. 어떤 시대의건, 어떤 상황의건 말이다. 성(性)은 중요하지 않다. ▶ 결혼없는 사랑은 인정받지 못한다. ▶ 누군가를 사랑하는건 마음먹기 나름이다. 굳이 자연의 순리를 여겨가면서까지 그럴필요가 있을까. ▶ 사적으로는 몰라도 언론은 자제해야 한다. ▶ 동생애는 진화적으로 불완전한 전략이다. 진화의 매커니즘 속에서 도태된다. ▶ 아닌 것은 아니다. 자연스런 인류의 모습에 억류하는 것은 오직 비참함과 처절함 그리고 초라함만이 남을 뿐이다. ▶ 아이! 놀수 있나? ▶ 신에 대한 반항이며 인류에 대한 배반! ▶ 크라임 게임을 보지 않은 자는 동생애를 논하지 말라!

오늘 길 '지킴이' 박수영(불교3)

“성폭력 없는 밝은 사회제가 만들어가요”



“저 너무 게을러서 탈이에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편하고 너그럽고 꼼꼼한 사람은 그만큼 까칠이같이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탈탈해서 건강증까지 심하구요.”

월령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짙은 붉은 머리모양 머리카락이 소탈하게 웃는 박수영. 하지만 과연 그녀가 말한 자신의 성격대로 게을러 수 있을까? 불교 불교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그녀는 공강시간에는 불교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심우장에서 아르바이트, 수업이 끝난 후에는 불교대내 써클인 '보살 사랑 연구회' 활동을 하는데다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지킴이'로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다.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지킴이'로 일하게 된 것은 2개월이 약간 넘었다. 오후 다섯 시가 되니 상담하는 '나눔이'와 교대로 일하게 되는 '지킴이'가 해야 할 일은 야

간에 걸려 오는 성폭력 상담전화로 받아 심리적, 법률적, 의학적 조언을 해 주는 것이다.

“처음 상담을 하게 되는 날은 너무 떨렸어요. 근무하는 동안 다섯건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어린이 성폭행이었어요.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에 말문이 막힐 때도 많죠.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최대한 냉정해 지려고 노력해요.” 근무하는 동안은 항상 긴장상태다. 밤을 먹다가 전화가 걸려올수도 있고 전화를 받고 일지를 먼저 정리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좋은 날에 해야 하는 상담, 가끔씩 걸려오는 장난 전화가 짜증나게 만들지만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 힘든 줄은 모른다고 한다.

“12학년 때 대학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 제 나이

때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그게 무척 궁금하기도 했구요” 성폭력 없는 밝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작은 힘이지만 하나의 '부른 운동'이라 생각하며 졸업때까지 계속할 생각이 다. “전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상담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하지만 저도 배우는 게 많죠” 지킴이로 일하게 된 후에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졌다고 한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도 한 번쯤은 뒤집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지배적인 남성문화와 고정관념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마 전에 '지킴이' 5기 기장이 된 그녀는 “어제가 무겁다”며 살짝 웃는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평범하게 산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글귀를 떠올렸다. (양지연 기자)

동/약/광/장

Table with 2 columns: Event Name and Details. Includes '다량관 식당' (Doryang-gwan Restaurant) with menu items like '생선가스(1,300)', '부대찌개(1,000)', '떡볶이(1,000)', '유채장(1,200)', '만두국(1,000)', '양념통닭(1,500)', '오징어찌개(1,000)', '왕도(1,300)', '왕치마찌개(1,000)', '김치수제미(1,000)'. Also lists '동국관 학생식당' (Dongguk University Student Cafeteria) and '교직원 식당' (Faculty Cafeteria).

은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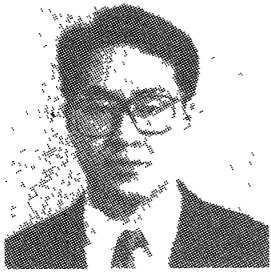
축하합니다

- MOOK! 축하하네! 웰? 생일을... 풍자담과 사이좋게 지내보게나 -1004
- 현성 형! 귀국을 축하합니다. -소나비

Large congratulatory section with multiple columns of text. Includes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and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Mentions '9월3일 푸름누리의 사오정 김태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and '우리 만남의 2주년을 축하하며 재욱이! 사랑해!'.

Large congratulatory section with multiple columns of text. Includes '열심히 합시다' (Let's work hard) and '알립니다' (Notice). Mentions '9월1일 동아리방 외부수신전화 개통 무지무지 축하하며...' and '정미아! 공부 열심히 해, -공주암에 걸린 유영공주'.

'민족 화해'는 '통일'보다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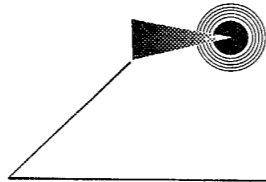
김희관

사파대 북한학과 강사

얼마전 TV에서 전 통일원부총리였던 한완상 방송통신대학 총장의 인터뷰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통일원 재직시절을 떠올리면서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통일된다"는 매우 역설적인 말을 하였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화해"라고 언급하면서 경험과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통일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사상을 보여주었다.

통일로 가는 길목의 제1관문은 바로 한 총장이 말하는 민족화해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김영삼대통령의 평화적인 남북 제의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을 "동포에게로 도와주어 경제난 해결을 지원하며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남북교역을 확대하며 북한관공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내용이 남북화해 및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교류



시사논단

통일정책 진단

발전하는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표가 실현되어서 남북관계에서의 대결구면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 북한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는가. 북한 문제로 증시가 폭락하는 일도 없었고 사재기 소동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1년 예산의 1/3인 20조에 가까운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 70만 대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남북문제를 선 거에 이용했으니 안했으니 하는 소모적인 당쟁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8.15대북제의를 보면서도 반가움에 앞서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선 김영삼정부 들어 3년6개월이 지나고 집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95년 정기국회에서 호되게 비판 받았듯이 그 동안의 남북정책이 일관성을 취입하기 어렵고 무원칙했다는 점에서 이번 8.15제의가 지켜질 지 의문이 든다.

예컨대, 지난 93년 2월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관계의 청신호를 밝혔지만 4개월 후 "핵을 가진 자와는 약속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핵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

한 확인이 안됐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긴장 분위기가 94년 6월 전 미국 대통령 카터의 방북으로 급전환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일성을 '한국전쟁의 전범'이라고 비판하면서 긴장관계로 급전환 하였다. 그리고 지난 95년 6월에는 느닷없이 북경 비밀접촉을 통해 대북 쌀지원을 단행했다가 대북문제를 지자체 선거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더욱이 지난 94년 8.15경축사에서는, "흡수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상징인 북한에게 대단히 자극적인 표현을 하였는데, 올해 경축사에서는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둘째, 이번 한총련 검거사태와 '와해'시도로 인해서 북한은 김영삼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을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제의는 한정부의 일방적인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다.

김영삼대통령이 8.15대북제의를 하는 같은 시각에서 평양에서는 밀집북한 한총

련학생들이 '축제'분위기를 속에서 8.15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연세대에서는 최대 규모의 한총련 진압작전이 수중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대통령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물론 한총련의 '폭력성'과 '비대중성'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올해에는 유난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에도 한총련은 같은방식과 규모의 행사를 한양대에서 벌이고 있지 않았는가?

올해만큼은 정부가 한총련에 강경 대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총련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일관성이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8.15대북제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정부는 남북 화해를 위해 평화적인 8.15제의를 한 지금부터라도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통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며 숙원 사업이다. 통일문제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주적인 남북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비로소 통일에 다가갈 수 있다. 어떠한 대북정책의 제의보다도 진정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결론으로 "그 혼란 청와대 갈수록 점성사시에 한총련 간부들을 한 번이라도 초대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아쉬움을 갖는다.

사설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

정부당국이 한총련 분쇄를 위한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대학구내의 수색과 연행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학내 분위기가 여러모로 뒤숭숭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방학을 보내고 편학의 의지를 추스리며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의 심경도 어수선하기만 하다.

그러나 강의 진행은 개강 첫날부터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타성적으로 컷머리 한두 시간을 흐지부지 넘기는 강사가 있기도 하고, 충실성이 부족한 강의계획서와 북적대는 강의실과 들리날락하는 수강생, 방종의 교내환경개선공사의 마무리가 아쉬워 여기저기 발에 채이는 불편이 목에 타고 있긴하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캠퍼스 총학은 개강맞이 떡간지를 열었다. 이번 공안정국에 본교 총학의 구성원도 여럿 구속되는 등 경황이 없는 터이지만, 이런 행사나마 꾸러나가는 의지를 눈여겨볼만 하다. 그러나 이 행사 진행과정을 보면, 이것을 통해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투쟁 공간을 열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개강의 신선한 기대감과 자기다짐을 위한 조촐한 화합의 장인지 분별이 안되고 말았다. 교수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학우들도 여색하게 갖추어질 뿐이려니 모처럼 만든 자리가 왜 어중간하게 되었는지는 준비한 총학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학우대중은 만만한 봄이 아니다. 또한 학우들도 총학은 소가 닭 쳐다보듯 해서는 안된다. 학우들은 진정한 자신들의 대의자치기구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활발한 통찰을, 때로는 매서운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우들이 방관하고 총학이 독선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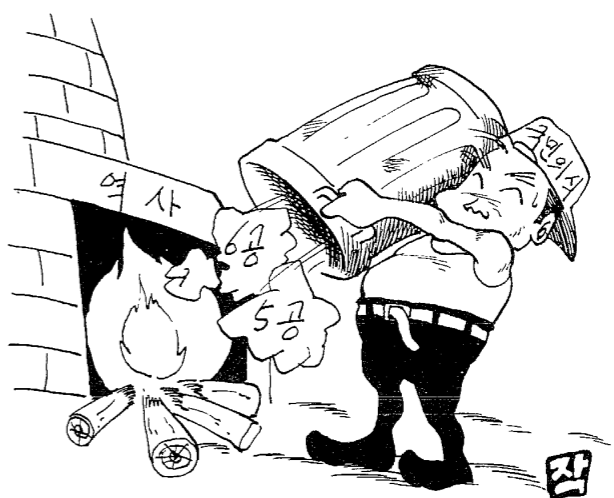
경주캠퍼스의 총학도 개강 첫주부터 루종선인이라는 학내인사 권과 행정체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슨 별미만 있으면 이것저것 참견하고 나서는 것이 학생회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대학의 개혁은 제도적 장치만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의식이 철저히 달라져야 한다.

좀더 엄격히 돌아보면, 여전히 강의 첫시간을 막무가내 휴강하는 일부 사례, 두원적인 수강신청과 정정, 북새통인 강의실 등 교수·학생과 학교당국이 보다 더 긴장된 자기업정을 강화해야 할 점들이 남아있다. 총학도 이번 계기로 진정하게 학우들의 중심에서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기반삼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지침을 모색·강화해주시기 바란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서성대고 있는 적당주의, 목적재일주의를 내세우는 일방통행, 융통성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학사행정의 징검, 대립과 무장의 학생활동 양상을 이제 실로 허심탄회하게 청산해야 한다.

통국안평

고대성



(송선영 기자)

경기침체 분석

높은 물가...국민경제 불안정

대기업중심 정책 탈피와 소비성향 절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다다수의 국민에게 '통요의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94년 조 선수주량 2위, 전자제품 수출 3위, 자동차·철강·시멘트·타이어 생산량은 세계 6위를 차지했고 성장거대 주식대금은 2천8백68억달러로 7위를, 상장주식 시가 총액은 1천9백18억 달러로 13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수준에 뒤지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90~94년 사이 소비자 물가가 29.3% 올라 일본 7.1%, 캐나다 9.4%, 미국 13.4%에 비해 훨씬 불안정함을 나타냈다. 한편 선진국의 10%대를 넘어서는 32.5%의 저축률을 보인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지난달까지 경성수지 적자가 1백16억6천달러를 기록해 앞으로의 물가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기하강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 운영이다. 대기업의 매점·매석을 미

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 성장·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법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업운영, 인력관리 등의 지원은 미약하나마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의 지원은 미비한 상태여서 대기업의 황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도산율이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은 이들 기업을 인수하여 더욱 거대한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자본을 이용한 재벌기업주가 등장, 경제를 점지화함으로써 정치가가 경제를 하고 경제가가 정치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개방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비합리적인 경영 관행을 일신

하기 위해 내놓은 신제발정책에 재 발들은 인륜을 내세워 정부의 정책을 전근대적 규제로 몰아붙이고 있어 이와같은 현상이 얼마나 무모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둘째, 소비자 물가를 더욱 부추기는 국민들의 소비성향이다. 세계에서 의제를 제일 좋아하는 국민들, "외제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외치는 사치소비자들,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사고 봐야 한다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달려들 물살을 쓰면서 국내 자금 유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또한 1인당 GNP가 늘어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3D 직종의 일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서부터 비롯된 개인주의, 이기주의

로 경제 사회는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현상은 3자협력력 통째서만이 해결되어 질 수 있으나 3자협력 자체 또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 경제대국으로 넘어가는 고비의 이러한 어려움을 원자재나 부존자원의 열악한 한국 경제 토대에서는 일찍이 예견된 바 이기도 하다. 70년대 이래 고도성장 지향의 국가 통제적 경제정책이 자율적인 국민 경제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3자의 각성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협력체제가 구체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각 지역별 경제특화나 WTO 체제등 경제질서의 개편이 우리 현실에 압박을 가해왔다. 경제의

세계화는 항상 증대되는 반면 3자 협력과 사회경제적 요충 사이에 수 융가능한 균형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기구가 거의 국내수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수준에 맞고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기구체제를 만드는 우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두가지 표준을 제시해 보면 첫째 국내 경제정책의 조정이다. 국민경제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정책일관 과정에 서 활동이 줄어든다면 경제에 더 넓은 활동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양적, 질적인 고용증진을 중심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둘째는 성장환경 조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쟁을 조건으로 하는 자유무역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사회적 자각의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적인 '진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저기 힘들게 다닐 것인가?"
"영풍문고에서 한번에 끝낼 것인가?"

새학기 개강준비,
아주 간편한 문제 더나구요!



대학교재·전문서적은 물론, 문구류·CD·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새학기 개강준비를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대형문구점, 대형 음반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벤트홀, 베이방, 휴식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지하철 종각역에서 나오시면 바로 영풍문고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전문서적에서 CD, 생일 선물까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이 넓어 여유 있고 쾌적합니다.
- 효율적인 매장 구성으로 찾기가 쉽습니다.
- 스낵코너, 이벤트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점음의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영풍문고 112-1111

연세대사건이후 사회전반에서는 '학생 운동의 정체성'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한층련의 이적성을 규정했던 것보다 바로 국보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미와 유래를 살펴본다.

(편집자)

◆국보법의 의미와 유래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 치중

시대변해도 기본내용 불변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아무리 문명정부, 세계화를 외친다 해도 결코 모방만 포장되어 왔을 뿐 달라진 것은 없다.

오늘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분단국가를 위한 소망과 경제정의 실현과 생존을 위한 투쟁, 사상과 양심·언론·학문의 자유, 심지어 참고교육을 희망하는 열정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탄압과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탄압에는 언제나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밑받침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국보법은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의 제정시기와 목적 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국보법은 국헌을 위배하며 국가를 변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집단 또는 단체와 그의 목적한 사항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요한 형벌과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장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진정한 자주독립을 염원한 우리민족의 뜻은 미군이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남한내에 군정을 실시하고 미군에 의해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감에 따라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을 좌익세력의 연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속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탄생된 단정은 반공정권, 반통일정권, 친일지주 자본가 중심의 반민중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인해 단정의 성격과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가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요청은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었다. 이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국보법이다.

48년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해도 국보법은 시류에 관습하지 않고 그 기본내용을 잃지 않고 있다. 다만 정권 교체기에 정통성 획득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심어 차례 개정을 통해 조항이 확대·세분화 되었을 뿐이다.

(고지은 기자)

◆르포-경주시 월성군 원전 추가 건설현장

식물고사·가축기형...방사능오염 가속

“내고향 버릴 수 없지” 건설반대 쫓겨

지난 7월 29일 경주시 월성군 감포 앞 바다에선 이 지역 주민 2천5백여명이 노란 깃발을 들고 '월성원전 추가건설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들은 지금까지 원전피해로 죽은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패를 들고 줄을 이었다.

위패에 이어 방사능 오염기구 설치, 대동천 취수장 즉각 폐쇄, 원전후속기 건설 백지화 등의 무수한 표지판 행렬도 가감했다.

“침탈로 인해 토지쓰임도 제한되고, 풍족했던 대동천도 매말라가고 이후 말할 수 없지...”라는 양복면 김상왕이장(월성원전 건설반대 추진위원장)의 한숨이 하루하루 오열되어 가는 현경을 설명해 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영광, 고리, 울진) 원전은 일반들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가압 경수로인데 반해 월성원전은 증수로 냉각제로 사용하는 증수로형 원자로이다.

증수로 핵발전소는 냉각수를 식히는데에 비닷물을 쓰지않고 민물을 쓴다. 대정청이라는 강상류에 관을 설치하여

하루 3만2천톤의 물을 빼내어 쓰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는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양수탑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 1호기도 캐나다와 기술제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4년 10월엔 원전에서 과압보호밸브가 파손돼 방사능 물질 '트리튬'이 들어 있는 증수가 원자로 건물내에서 흘러나온 사건 등 여러 번 누출사건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부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원전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명확한 근거기준을 제시하라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들이 내놓은 87년 한전연감에 제시된 방사능 누출의 비교표에 따르면 고리는 1천5백53큐리, 영광은 4백14큐리 월성은 1만3천9백70큐리로 월성이 제일 높다고 전한다.

그러나 원전측은 주민들이 제시한 방사능 누출 비교표는 근거가 모호한 것일 뿐 아니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론한다.

인근지역의 자연식물은 소멸해 가고, 암수를 구별 못하는 송아지가 출현하는

등 방사능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원전의 생명은 30년인데 반해 원전 폐기후 방사능은 3만년동안 없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외국에선 더 이상의 원전추가 건설은 중단하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원전만 철저하게 관리·점검하는 실정인데 비해 정부는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원전을 지을 것이라고 한다.

“운동이 뭐 별거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수밖에...인근지역은 아직도 원전측이 말하는 보상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민도 있다니깐...”라고 말하는 한숨섞인 이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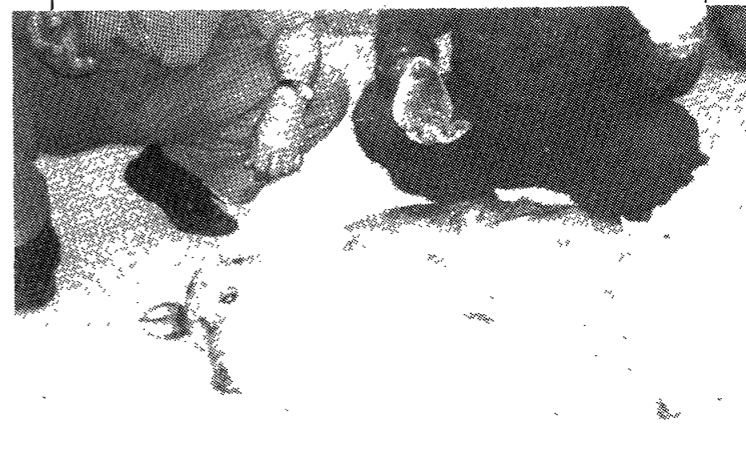
월성군의 반핵운동은 지난 95년 12월 월성원전 반대투쟁 위원회가 결성되고 주민과의 합의하에 원전측과 피해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전이 지어저 오염이 된다고 해도 내고향이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에 이곳을 버릴 수 없지”라는 양복 이장의 말속에는 한결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인선 기자)



◆위 사진은 지난 7월29일 월성군 감포앞바다에서 열린 '원전추가건설반대시위' 장면, 아래는 방사능오염으로 암수 구분이 안된채로 태어난 기형송아지.



동약로

원손잡이

하늘이 티없이 맑고 가을은 싸늘함을 느낄 정도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안전한 가을인가 보다. 보통 이 밤이면 늘 새로운 시작으로 기본이 들뜨고 방학동안의 충전으로 마음의 여유 또한 넘칠 때이건만 왜 이리 마음이 편치 않은지 모르겠다. '반민중대회 원전봉쇄', '한층련 이적단체 규정', '학원 기술침탈'...



로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그리고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학생회 사안에 관련된 물건과 서적, 심지어 컴퓨터 화면과 눈에 띄는 디스켓까지 모두 압수했다. 순식간에, 그리고 조용히 이루어진 일이었다.

무섭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뿌리째 잘라 버리려는 일을

적인 생각이, 그래서 한 지방에서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폐쇄적인 생각이 무섭다.

한 학우가 이렇랄을 한다. '정부의 이익 태도는 오히려 자신을 작은 그릇 속에 가둬두는 속물은 행동일지도 모른다'고.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이런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 넌 오른손잡이고 난 왼손잡이야. 그게 뭐 어쩔다는 거지?' (김상만 기자)

◆공안정국 진단

무차별적인 학생조직 와해 시도

보수언론 앞세운 여론몰이 병행

경찰은 학생운동사법 검거를 위해 학기 중에도 모든대학에 대해 수시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앞으로 학생운동 탄압이 더욱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다.

경찰의 한층련 해체반 구성, 28·29일 이틀간 6백2명 연행, 지방 총련등 한층련 사무실 폐쇄, 공격형 시위진압 장비 도입, 나무누리 내 한층련 방 폐쇄, 한층련 은행계좌 추적, 특수 진압대 편성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부 조치들은 연세대 사건 이후 한층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단화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와 발맞춰 몇몇 학교는 한층련 관련 구속자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이념서를 통해,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분리고지, 늦은 시간 학생회관 출입 통제를 검토하는 등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각 학교 학생이 주체가 되는 대학신문에 대해 한층련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모대학의 경우 배포를 중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운동권은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세대 사건에서 4백2명의 학생이 구속된 이후 학생회 주요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져 있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불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본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나와 집에도 못 들어 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군사정권도 조심했던 일을 현 정부는 서슴지 않는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시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연세대에서 만난 한 시민은 "정부는 학생운동 탄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 97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기중에도 수시로 압수수색을 실시 하겠다"는 경찰의 발표를 보면 학생운동 탄압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

상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은 한층 무게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상황들이 지난 69년 일본의 상황과 비교되곤 한다. 당시 일본은 연세대사건과 흡사한 '동경대사건'을 통해 학생운동이 와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회 분위가 역시 몇몇 보수언론이 이념을 문제삼아 여론을 주도했던 것으로 기록 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냉전 구도의 세계질서 속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내부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다. 지금 세계는 냉전이 무너지고 나라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자국의 이익과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집권세력이었던 자민당이 동경대 사건을 계기로 약 40년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희동 기자)

새로운 전문방송시대가 열렸습니다

케이블TV 100만 시청가구(400만 시청자) 돌파!

Advertisement for Cable TV services including 30 specialized channels, internet services, video on demand, home banking, and medical services. Includes icons for '30개 전문채널', '인터넷서비스 N', '주문형비디오', '홈뱅킹', and '원격 교육·의료'.

모르면 손해보는 케이블TV 이야기

다양한 생활정보서비스, 멀티미디어왕국 케이블TV에서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케이블TV —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케이블TV를 통해 모든 생활정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TV에 가입하십시오, 21세기 멀티미디어왕국이 곧 펼쳐집니다.

KCT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의: 다채널 전문방송인 케이블TV는 기존 공중파(KBS, MBC, SBS) 프로그램만을 재방영하는 중계유선방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니 혼동하지 마십시오.

설치 및 가입안내

- List of cable TV provider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various regions: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열린 교육 앞장서 이끌어 갈 터”



96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최대석(사회과학대 북한학과 전임강사)

- 82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
- 84년 시리큐스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취득
- 93년 클레어먼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 북한사회문화론 전공

- 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 90년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계량경제학 전공

- 86년 본교 미술학과 졸
- 89년 본교 대학원 미술교육 석사학위 취득
- 서양화(구상) 전공

▲김용(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91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졸
- 94년 경북대학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마취학 전공



▲김무곤(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 84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 87년 동경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취득
- 94년 동경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
- 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



▲박재완(경상대 경상학부 전임강사)

- 8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
- 86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95년 텍사스대학교 회계학 박사학위 취득
- 회계감사 및 세무회계 전공



▲조정숙(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2년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졸
- 94년 뉴욕주립대학교 약리학 박사학위 취득
- 약리학 전공



▲양희생(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6년 조선대학교 의학과 졸
- 산부인과 전공



▲송의엽(경상대 경상학부 부교수)

- 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
- 90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박사학위 취득
- 화폐금융론 전공



▲김광우(이과대 전산통계학부 전임강사)

- 84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
- 86년 시리큐스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취득
- 92년 시리큐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학위 취득
- 전산통계학 전공



▲홍성원(의과대 의학과 조교수)

- 77년 서강대학교 생물학과 졸
- 81년 서강대학교 생물학 석사학위 취득
- 95년 뉴욕주립대학교 생물학 박사학위 취득
- 생리학 전공



▲한재석(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8년 고려대학교 의학과 졸
- 94년 고려대학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성형외과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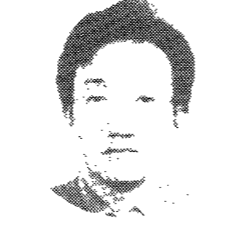


▲김유홍(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0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졸
- 87년 경북대학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마취학 전공



▲김효연(인문과학대 미술학부 전임강사)



- 80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졸
- 87년 경북대학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
- 마취학 전공



▲조성민(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7년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
- 96년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과정 수료
- 소아과 전공

◆신임교수회장 - 김익기 교수

새로운 변화로 학교발전 동참



한 단점이 있지만, 교수가 모일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의견개진의 장이 되어가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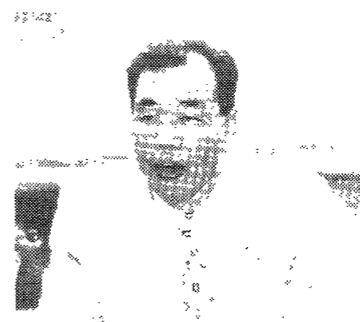
- 학내에서 가장 고쳐져야 할 부분은, = 제주제간의 조화로운 융화가 잘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로간의 갈등을 제거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진일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생각한다. 지금 형식의 총장선출에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교수회의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재조정되어야 하지 일방적인 폐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 이번 5대 교수회의 사업계획은, = 교수회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교수를 대상으로 여론조사(Survey)를 실시해 학교발전방향과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경주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중이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테니스 대회같은 행사를 개최할 생각이다.

(김기영 기자)

인터뷰

◆신임노조위원장 - 김창욱 계장

화합적인 공조 통한 발전지향



질과 신분 보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대학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어 직원들의 전문화에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현재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장기적인 기금조성을 하고있다. 약 2천만원을 모아 놓은 상태로 앞으로 10~20년 더 추진해 주택자금 마련등에 쓸 예정이다.
- 직원과 학생, 교수의 역할과 연대활동에 대해서는, = 2학기에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에 따른 원활한 행정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반면에 개혁적인 교수들로 꾸러진 교수회가 꾸러진만큼 노조는 공동연대 가능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 이번 7대 직원노조의 기조는, = 우선 직종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직원간의 갈등을 직원노조 존재여부를 결정할만큼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도부는 화합을 도모키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기능직과의 연대에 힘을 쏟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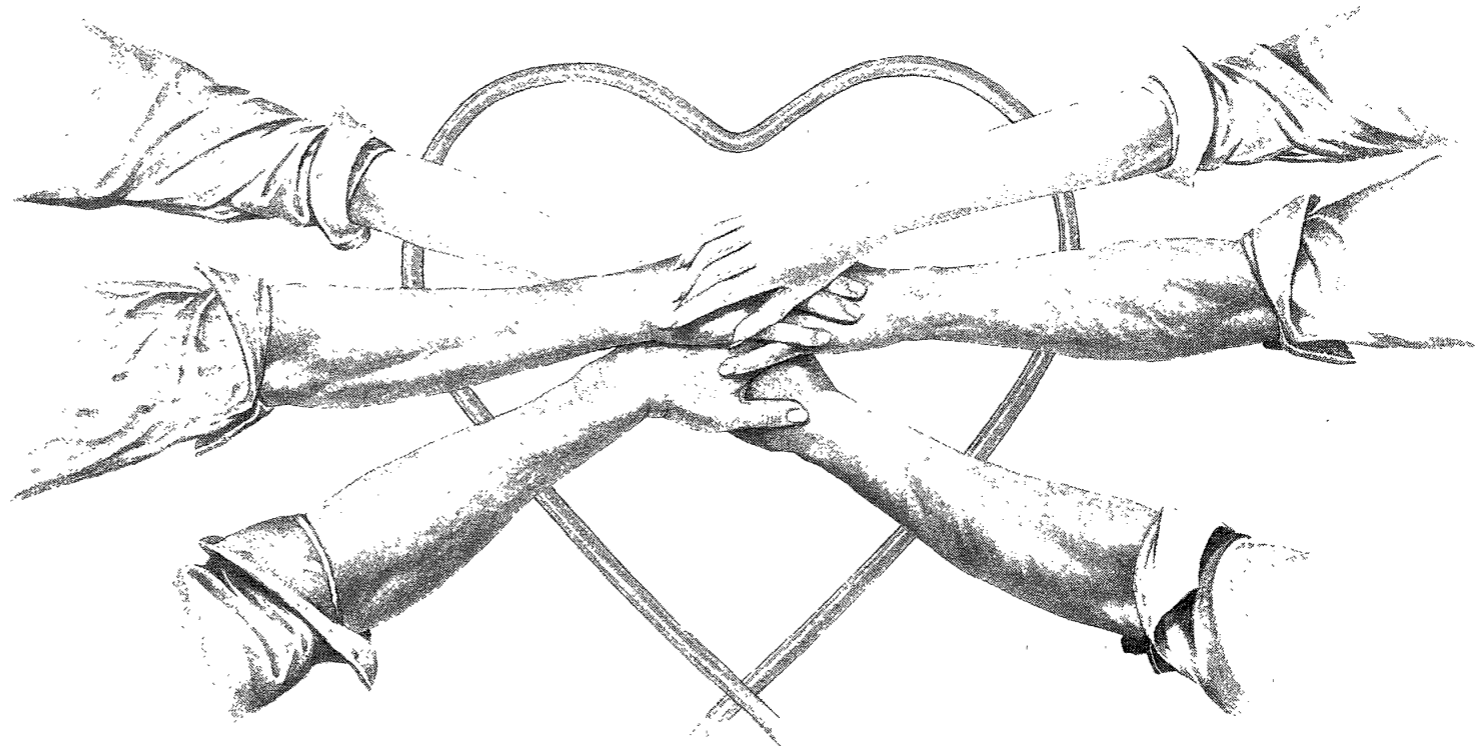
또한 6대까지 진행한 경제적 삶의

(한승용기자)

박산그룹의 전임직원은 해마다 단체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피가 흐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내 피를 나누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로
사랑을 실천하는 박산 사람들—



◆대학가의 성담론학 이성애·남성중심 세계질서 비판

패닉의 '달팽이'를 읊조리며 아름다운 대중문화를 논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 되어버린 95년 대학가에 괴상한 운동이 일어났다. '성을 담론화하자'는 운동, 흥미 위주 '동성애'와 '에로티시즘'보다의 총수속, 상당히 불온한(?) 주제로 시작된 운동이었기에 처음엔 "상업주의적 발상이 아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반응이었다고. 그러나, 1년여가 지난 현재 '동성애 인권'을 공론화하는 시도로 90년대 실천적 대학문화의 한창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95년 최초로 성담론화운동이 성공한 대학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등. 이 세대학은 '성 정치학'과 '동성애'에 관련된 대자보를 게재, 성공문화에 성공했다. 특히 연세대는 작년 10월 '성정치 문화제'를 개최해 남성, 여성에 중심적 세계질서를 비판하였다. 이 '성정치 문화제'의 백미는 단연 '대학내 동성애만들기'라는 이름이라 실시된 대자보장판전.

"보편적인 가치니 하는 말로 억압하지 말자"는 정의와 94학번의 글에 대한 경제학과 94학번의 반박대자보 "이성간의 상관관계 거부감을 갖는 우리사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에서 나타나듯 동성애를 둘러싼 논쟁은 그칠줄을 몰랐다. 페니을 앞둔 13일 오후에는 예정에도 없던 토론회로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10월19일 총학생회주최로 '성정치운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96년의 대학가 성담론학 작업은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뿌리내림의 '성포럼', 이화여대의 '페미니즘 문화제', 본교 총학생회의 '제1회 동양 성문화제'가 바로 그것. 성문화상을 공모한다는 지 동성애 영화를 상영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작년과같은 실질적 성담론의 움직임은 미흡한 편이다.

이는 지난 6월 본교 재학생 2백3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동성애자 모임이 결성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40%의 학생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답해 무관심이 가장 큰 여론임을 확인시켜줬다.

'가부장제의 파괴, 이성애중심적 사회비판'을 기치로 시작된 성정치학운동의 일환인 동성애자 모임 창설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게 당연한 일일 텐데, 가장 큰 여론이 무관심이라니 이상한 일이다.

(한누리 기자)

본교 최초로 개설된 '성의 역사' 강의의 1차 수강신청인원수는 1천4백51명. 현상적 수치에서 반영하듯 동아내에서도 '성'에 대한 관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중 '성과의 진지한 만남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은 몇이나 될까?' '성'담론의 시대라고 하지만, 단지 '행위'와 '성별'의 의미로 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본사에서는 '성'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대학가의 성담론화, 동양의 성의식, 성정치학을 1회 기획으로, 동양의 성담론화운동을 2회 기획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이 정 우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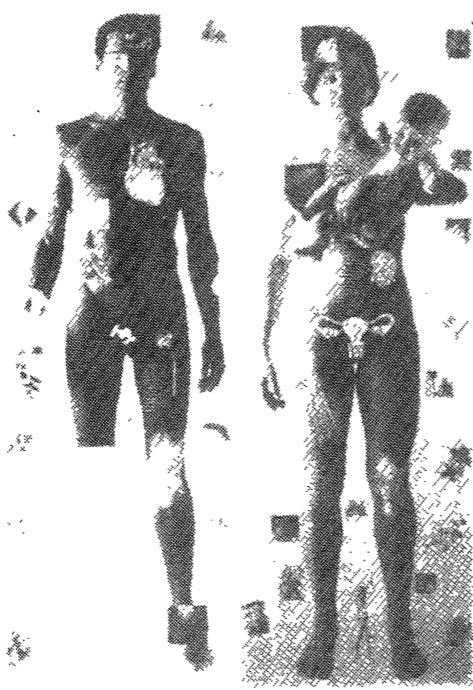
섹스와 젠더의 싸움

작년 1995년은 성정치에 있어 매우 의미심장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해로 기억된다. 그것은 베이징여성대회와 함께 섹스와 젠더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외연과 내포의 양이 확인되는, 또한 동시에 재구성되는 흥미진진한(?) 과정이었다. 생물학적 성(섹스)과 사회적 성(젠더)의 인식론적 분리의 대중화 과정은 오늘날 성이라고 불리우는 의미의 체계가 어떠한 지평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가장 뜨거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전광타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논의는 다시한번 세기말을 맞는 우리 근대인들로서는 일백백만에 맞는 성인식론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는 희망 그 자체인 것이다. 물론 근대 공교육의 아들딸들이나 우리로서는 성이 권력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수긍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성과 성을 둘러싼 여러 도덕률과 사회적 합의들은 그것이 근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래의 조역사적인 고정불변의 가치로 둔갑해있다. 혹은 그것이 전래의 기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각기 다른 사회와 역사 속에서 획득하는 기표의 전혀 다른 것일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일례를 들어 호주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권력 재산의 구조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제를 걸쳐서 성씨를 가진 자들은 중국의 문화수입에 열안이 되었던 일부의 지배계급이었을 뿐, 우리민족의 전통에 성씨라는 권력의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로 오늘날 4%의 지배계급에 속하지 못했던 96%의 사람들은 모두 가짜 존을 들고 뿌듯해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중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전통이 아닌 전통에 대해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함께들만 벗겨보면 누구나 호주제가 전통의 기표를 모사한 지독한 자본주의적 계급체일 뿐

◆세기말, 그리고 성...그 진화적 권력 대면하기

남성중심 권력하에 통제대상으로 '성'인식

새로운 성과 사랑의 제도로 공존 모색해야



◆동성애와 사랑 유려없는 이혼률로 이성애 가족주의의 위기시기인 1996년, 세기말, 이혼론의 시기에 우리의 성적 정체성은 어느정도일 까? 사진은 가족 제도의 위기를 나타내는 포스터.

임을 알 수 있다. 전혀 다른 사회구성체에서 하나의 전통이 살아 남았다는 의미는 그 전통이 전혀 다른 기의의 획득에 성공한 의세계 운동의 권력으로서의 기표체계를 갖는 것을 증명할 뿐,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그 스스로 영구불변의 가치임을 보장하는 신화의 불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의 실재로써는 근대적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성에 대한 그럴싸한 인식의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질적으로 근대적 가치체계에서 성은 사적인 공간에 유예된 접근불능의 지식이다. 아니, 그것은 근대적 지식의 목록에서 누락된 급란의 공간이자 대상이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늘 재편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변화의 주역이었다.

이성애만 옳은가?

근대의 보편화된 이성애주의, 즉 이성애만이 옳고 건강한 것이며 그 외의 사랑의 형태는 정조와 통제 대상으로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등장은 핵가족 시스템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그러한 마인드의 변화를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인술로서 기묘한 문화인류학적 보고서가 바로 프로이트의 저작물이다. 그는 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간에 남·녀의 성차를 절대화하였으며, 그것은 여성계급에 대한 또다른 마녀사냥의 재래가 불쾌한 것이었다. 이렇게 빅토리아 시대의 말기는 세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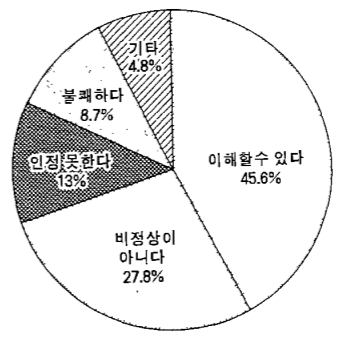
로서의 불안과 공포를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의 마련으로서 위안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백년이 지난 우리의 세기말은 어떠한 것인가? '성담론'의 시대라고 하지만 성정치 전연의 모호함과 미성숙함 탓에 새로운 성인식을 하지 못하고 뿌리깊은 남근주의와 이성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권력을 재편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성계급이 선연적 해방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을 이분법적인 젠더의 무비트럼에서 구출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성애주의적 남성들을 과도한 사회적 압박감과 일그러진 남성성으로부터 구원할 방법은 무엇인가?

성권력의 탈출구

과연 우리는 지난 100년이 구축한, 말도 안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상호 배타적인 배제의 정치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 다시 우리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베이징 여성대회를 돌아보자. 베이징 여성대회에는 우리들의 신상 명세서에서 섹스(성별)라는 칸을 영구삭제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여성운동가들은 그 공란을 젠더(사회적 성)로 대체하는 데에 성급히 찬성했다. 그러나 이반운동가인 나, 그리고 수많은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은 그 결정에 반대한다. 사회적으로 경계되어 온 계급의 체계로서의 젠더를 그대로 쓰는 것은 남성성이나 여성성으로만 교육받아야 하는지(태어

◆성인식 설문조사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교 학생 10명중 6, 7명 정도는 성희롱을 당하거나, 포르노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며, 동성애에 대해

서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에서 성문화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본교 재학생 2백36명(여학생 1백8명, 남학생 1백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62.2%는 포르노를 접해왔으며 74.6%는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는 73.4%의 학생들이 동성애를 인정한다(이해할 수 있다 45.6%, 비정상적이지 않다 27.8%)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인정받아야 13%, 혐오스럽다 8.7%) 21.7%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동아 여성 여론조(9월 2일자)에 실린다. (문화부)

달 하나 천 강에 첫째 부인



옛날 어느 부자집 남자가 네 사람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네사람의 부인은 모두 한결같이 한 사람의 남편에게 앞 다퉈서 서비스를 잘 하였다. 특히 넷째 부인의 서비스는 죽음을 걸까지 함께 가리만 걸 정도로 극진하였다. 부자집 남자는 네명의 부인과 함께 아들 딸을 출산해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일상은 덧이 없다 하였는가. 세월은 흘러 어느덧 부자집 남자가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쉬운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흐릿한 나날들이 엮인 것 같다. 부러울 것이 없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여유같은 마누라가 네명이나 되어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것과 토끼같은 새끼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버지의 체면을 유지해 준 것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드디어 부자집 남자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죽기가 싫었다. 일상을 마쳐 일구어 낸 부의 명예와 행복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았다. 혼자 죽는 것 또한 쓸쓸하고 외롭고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넷째 부인과 함께 죽음을 걸고 가고 싶었다. 넷째 부인을 불렀다.

"어보! 내 이제 죽음을 눈 앞에 두고 당신한테 부탁이 있는데 들어 주겠소?" 넷째 부인은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다 들어 들일테니깐요. 어보, 영영!" 슬픈 듯이 넷째 부인은 소리내어 읊었다. 남자는 내심 흐뭇해하면서 "나랑 같이 가겠소?" 넷째부인은 "아니 뭐요, 나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 대문까지 함께 갈수가 있어요?"하고 필적 뛰면서 방을 나가 버렸다. 남자는 기가 찼다. 크게 낙담을 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셋째 부인을 불렀다. 셋째 부인 역시 "내가 미쳤어요? 동네밖까지 함께 갈 수 있지요?"라고 하면서 방문을 차고 나갔다. 남자는 어기가 없었다. 그렇게 사람을 베풀었던 건만 후시나 하는 생각에서 둘째 부인을 불렀다. 물론 "당신 평소 나에게 서운하게 했지만 무덤까지는 함께 가 주세요요"남자는 아꼈었다. "아니 이럴수가" 첫째 부인을 부르고 싶었지만 첫째 부인에게 너무 구박을 많이 해서 감히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죽을 의 길이 너무 무서워 엄지 불구하고 불려서 들었더니 "어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의 조강지처예요 죽음을 걸 걸까지 함께 갈게요" 남자는 감격하였다. 그리고 지난세월을 후회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넷째 부인은 재물을 셋째 부인은 명예를 둘째 부인은 지식을 첫째 부인은 전통문화를 각각 상징한다.

전통문화는 민족의 뿌리이다. 뿌리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다름없다. 서양화에 치우치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가운데 혹시 민족의 뿌리를 감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종교적 편견에서 엄수하여 여기는 경향은 없는지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우리의 꿈나무들을 뿌리를 모르는 천덕꾸러기로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전통문화를 잃으면 우리 것 모두를 잃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 상 진 불교문화대 국악과 교수

143년 전통과 안전 기술로 안전한 렌즈
인간의 눈만을 연구해 온 바슈·롬의 역사와 안전 기술로 만듭니다.

0.035mm 두께로 편안한 렌즈
이물감이 줄어주고 산소투과율은 높이고 -
바슈·롬 렌즈 1렌즈 0.035mm까지 얇아졌습니다.

앞선 공법으로 믿을 수 있는 렌즈
함께나 같이 끼고도 만든 바슈·롬 콘택트렌즈 -
원천기술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초보자에게 -
바슈·롬으로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가장 편안한 눈을 생각하신다면 -
콘택트렌즈에서 관리용액까지 바슈·롬 하나로!

바슈·롬 콘택트렌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다!

바슈·롬 일회용 콘택트렌즈
일회용 렌즈도 역시 전문회사 바슈·롬!
2주일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바슈·롬 다목적 용액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을 하나로!
콘택트렌즈 관리가 너무 간편해졌어요!

첫 손잡부터 편안합니다.

BAUSCH & LOMB
Contact Lens System

전국 안과 및 약국에서 바슈·롬 공식인증점 마크를 확인하세요.

문의: 02-555-1111 (바슈·롬 고객센터)

바슈·롬 코리아

◆음식을 쓰레기 처리문제 시급

하루 1천7백kg 배출...처리비용만 13만6천원
생협, 적정배식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당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법령 규정이 발효되면서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난지도 등의 매립지에 매립 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은 지난날 28일 13차 생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위탁처리 업체 후보는 진돌농산과 대학생협 중앙회 두곳으로 업체선정은 차기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본교내 식당과 매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총 1천7백kg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 정리

할 경우 하루 13만6천원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22일을 기준으로 1개월에는 2백99만2천원이 1학기에는 1천5백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이 헛되어 지출되게 된다. 이에 더해 50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아리수 매점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또 보리수는 이번달 중순부터 전면내부공사를 실시한 후 매뉴를 대폭 늘릴 것을 감안한다면 배출량이 1백kg을 넘을 것은 뻔한 예상이어서 음식물 처리에 따른 비용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음식물 쓰레기는 원자재의 1/30이상이 배출돼 원자재 구입비가 하루 1천만원 이상인 것을 미루어 볼때 자체 비용이 하루에 최소 3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출에뿐만 아니

라 처리 비용에도 엄청난 금액을 지출시킨다. 생협은 이에대한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내용물을 조사해 양이 많은 식당은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한 배식이 이뤄지지 않는 점과 학생과 교직원들의 잔반이 계속해서 남아도는데 있다. 김용문 생협 기획담당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반으로 줄여도 비용은 절반이상이 절약된다"며 "2층으로 남비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한상용 기자)

‘동국인의 날’ 및 개강잔치 개최

김종희 의경 추모·구속학생 석방요구

지난 30일 '구속학우 석방과 공안 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정주·야간과장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이하 비대위)는 '첫 번째 '동국인의 날' 및 개강잔치를 오후 4시부터 불상앞에서 개최했다. 1부 '동국인의 날'은 제27대 총학생회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매일 마지막 금요일을 '동국인의 날'로 정

고 일정한 행사를 갖겠다고 한 약속을 2학기부터 이행하는 것으로, 30일 있었던 첫번째 '동국인의 날'은 고 김종희 의경 추모식과 방종환동맹보고·시사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부는 2학기 개강일이 딱정치로 교사, 축시낭독, 딱정치 등의 행사가 준비되었으며 불상주변에 있던 학

생들에게 연세대 사건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를 하고 준비된 떡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늘(2일)부터 불상앞에서 구속학생 석방요구와 연세대 사건의 진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모금운동, 선전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1주일간 천막농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교육원 개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교육' 특강도

오늘(2일) 2시 학술문화관 예술극장 및 학술문화관 전실에서 사회교육원(위원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은 개원행사를 가졌다. 사회교육원 개설은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일반사회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며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이런 행사는 개원식, 다과회, 특강 순으로 진행되며 특강은 정병조 교수의 강의로 이루어지고 제목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사회교육'이다. 한편 지원자격으로는 학력 및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지난 26일 1차 마감한 후 현재 추가접수중에 있다. (이태훈 기자)

신규교수 수계식

지난달 30일 정각원(원장=이범산·신학)은 신입교원 신계식 및 수계식을 실시했다. 이번 신계식은 이범산 원장의 건학이념교육과 안중환 상근법사의 사찰예절교육으로 이뤄졌다. 이어서 31일에는 신규 임용교수 5명과 학교 인사들과의 단합도모 차원으로 신규교수 연수회가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연구교류처(처장=임기종) 연구부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오늘부터 수강신청확인

오늘(2일)부터 오는 4일까지 수강신청 확인기간에 전교생들은 대학교육과와 학과에서 수강신청 확인을 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 복학·재입학생은 이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전산처리 오류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 변경할 수 없다. 한편 학과과의 한 관계자는 "동일과목의 이중 신청시 학점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수강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삐딱이 대학’ 강좌 신설

원하는 주제·강사 자유롭게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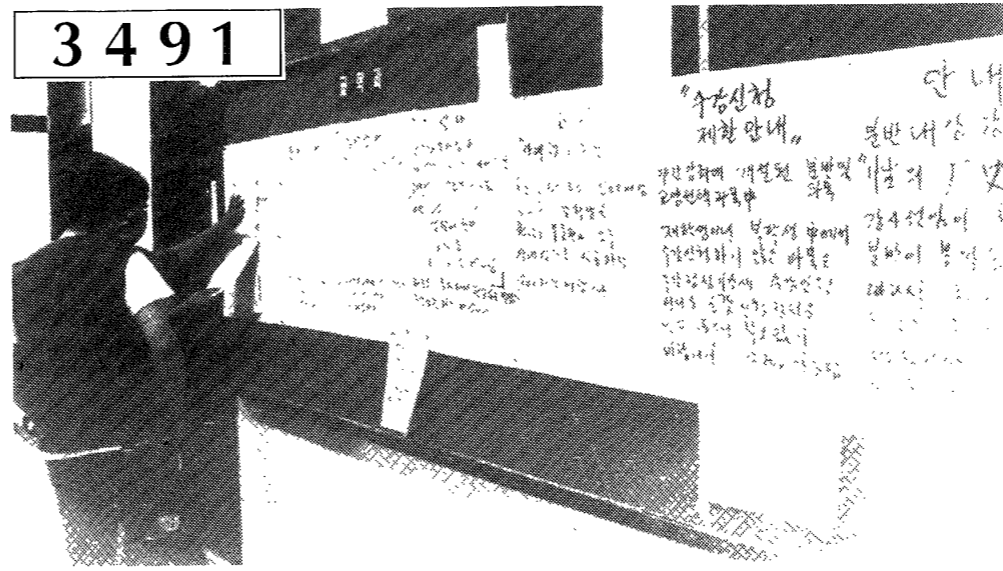
제11대 총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와 사회과학대, 철학과 사회문헌연구회(회장=이승준·철2)주최로 '삐딱이 대학'이란 강좌가 오는 16일부터 6주동안 열린다. 이 강좌는 정규적으로 받는 수업 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기 원하는 주제를 선별하고 강사를 선정해서 듣는 새로운 형태의 강의제도이다. 서정은 총학생회장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강의위주의 수업

에서 벗어나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강좌"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강좌 내용은 △제1강좌=성정치-강제적 이상을 넘어서... △제2강좌=신화와 각본으로부터의 탈주-Break the Woman △제3강좌=반자본 열린 강좌=우리시대의 중심 찾기-다시 정치경제학의 복원을 꿈꾸며 등이다. 접수는 학생회관 앞, 도서관 앞, 동국관 앞, 사회과학대 학생회실, 총

학생회관에서 할 수 있으며 강좌당 1만원이다. 한편 총학생회에서는 오늘(2일) '동약여성'여름호를 발간한다. 산업기술대학원 단기강좌 산업기술대학원(원장=김상규·로목공학)은 오늘(2일)부터 5일까지 학술문화관에서 단기 강좌를 마련한다. 일반인과 대학원생을 수강생으로 하는 이 강좌는 본교 산업대학원이 주관하고 한국철강협회에서 후원한다. '강곡선교의 설계와 시공'을 내용으로 Alabama주립대학의 유재효교수, 본교 이상철(토목공학)부교수가 강사를 맡았다.

야구부 결승토너먼트 안착

96년도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에 출전하고 있는 본교 야구부가 30일 현재 4전4승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인하대를 10대6, 성남대를 6대2로, 경성대를 7대6, 한양대를 15대11로 이긴 야구부는 앞으로 동아대, 경희대, 원광대, 고려대와의 예선전을 남겨 놓고 있다. 한편 이번대회는 오는 7일까지 예선전을 치른 후 8일부터 결승 토너먼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점... 또 다시 시작된 개강. 그러나 학생들의 수강 과목 신청이 인원 초과, 미달 등으로 분반·폐강되는 과목때문에 어수선 하거나 하다. 이런 분위기속에 곤란을 겪는 것은 교무처 직원들과 학생들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동국관 4층에 게시된 분반·폐강과목 공고를 보고 있는 학생들 모습. (이태훈 기자)

학·전·무·대

김일은(?)양

○...풍악 곳곳 돌아다니는 학생 손에는 강의시간표가 필수적(?)인데 몇년에 걸쳐 내려오는 악습인 강의계획서의 불신뢰성. 사정(?)으로 첫수업을 빠지면 나중엔 강의실조차 찾을 길 없어 김일은 양처럼 헤매이기도. 으레 붙여져있는 '분반', '강의실 변동'등 공고로 인해 제대로 정해진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은 오히려 학생이 가우증. 바뀐 강의실을 찾아가는 이 번에 복학한 한 학생이 강의계획서 붙여지게 쳐다보며 한마디, "양치기소녀 비금기는 강의계획서" 소울한 공진형

○...개강첫주 새기분으로 새 출발하려는 학생.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바뀐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공사마무리로 수업준비 귀를 때리는 굉음, 공사자재가 복도까지 침범해 통행조차 불편. 이에 본 회전문대자 윌 "의부시설 공사로 대충평(대충평합법인가인정제) 준비하시는 학교당국의 노고도 알만하지만, 학생의 공진형(공사진행평가제)에도 관심 가지시길..."

어이게 아닌데 ○...지금은 강사대기실로 쓰이는 방이 원래는 학생자치공간이어서 생자대학생이 관할을 요구하였는데. 연유를 알아보니, 학생들이 연구실이 없어 취미는 교수님을 위하여 잠깐 빌려온 것이었다고. 그 교수는 새 연구실이 배정되자 이사기버리고 강사들의 대기공간으로 임무고대 했다는 데.

뒤늦게 안 학생들의 물러갈 만 말에 학교측은 시치미 뚫! 이에 한 생자대 학생 '광탄한 표정 감추지 못한채 "강사님들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학생 자치는 어떡하리구"

식수난 ○...더위는 한물 쪼여 약간 서늘해졌지만 물을 찾는 학우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시원함은 식수대지만, 그나마 있는 곳은 나쁜연. 두개의 단대가 있고, 교양수업도 많은 학술문화관에는 식수대가 아예 없다. 학생들의 설치요구에 학교측은 건물이 원래 학부생용이 아니어서 설치가 안됐다고 변명만 늘어놓을뿐. 목이 타는 학우들 입모아 외치길 "물좀 주세요~"

무인복사기 이달 중순 사용
카드로 복사비 자동 출납

복사실, 식당등의 학내복사기실과 도서관 출입에 학생, 교수, 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무인복사기 카드(Dong Guk University Coop)가 오는 9월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카드는 우선적으로 복사기에만 사용하게 되는데 '66인터페이스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 기존에 일반이 복사비를 돈으로 지급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카드에서 자동적으로 금액이 출납된다. 또한 무인복사기 카드는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가 미국 인터타드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

태며 5천원권, 1만원권 2종류로 각 복사실에서 구입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무인복사기 설치도 준비완료단계에 있다. 설치대수는 총9대로 장소는 학술관 지하1층, 문화관1층, 동국관5층, 회화관2층, 명진관1층, 원흥관4층, 학림관1층에 1대씩, 복사기 사용이 잦은 도서관 1층과 학생회관 2층에는 2대씩이다. 도서관은 생협과 대수의 배치장소 협의중이며 학생회관은 동아리연합회측의 요청에 따라 무인복사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 고

'96학년도 제 2학기 수강신청확인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1. 기 간: '96. 9. 2(월)~9.4(수)
- 2. 장 소: 대학교육과, 학과
- 3. 대 상: 전교생(이반학기 복학, 재입학생은 위 기간에 수강신청)
- 4.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은 할 수 없음. 단, 전산처리 오류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 등의 경우에만 정정 가능함.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다. 동일 교과목의 이중 신청시 학점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수강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람. *컴퓨터실습, 실용영어 등 실습과목의 수강정정은 수업운영상 지정강좌로의 정정만 허용함.

'96학년도 신입생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 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2학기 특별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 시험과목 및 시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교양필수	00005	컴퓨터실습1	2	09:00-09:50
교양필수	00010	실용영어2	1	10:00-10:50
교양필수	00008	영어회화2	1	11:00

- 2. 응시자격 및 과목 가. 자격: '96학년도 1학년 재학생(1학년 복학생포함) 나. 과목: 2과목까지(3학점 이내)
- 3. 시험일시: '96.9.7(토) 09:00
- 4. 전 형 료: 과목당 30,000원
-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6.9.2(월)~9.4(수), 3일간 나. 장소: 교무과(접수시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 6. 전형방법 가. 컴퓨터실습1: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크에 저장하게 한 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실습테스트) 나. 실용영어2: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평가(실습테스트) 다. 영어회화2: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전형
- 7. 합격자 발표: '96.9.10(화), 15:00

'96-2학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공고

- 1. 교육일시: '96. 9. 20(금)
 - 2. 교육장소: 노고산 종로·중구 훈련장
 - 3. 교육대상 가. 1학기 기본교육 불참자 나. 2학기 전입자중 교육훈련 미실시자
 - 4.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 가. 수령기간: '96. 9. 6 한 나. 수령장소: 비상계획과(본과 2층) 다. 수령시 지참물: 본인 도장
- *'96년 2학기 예비군교육을 9월 20일 단 하루만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필히 참석해야 하며, 교육소집 통지서를 기간내에 반드시 수령하기 바랍니다.
1996. 9.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교 무 처 장

문화단신

◇올림픽 선 풍선화아...신(神)에게 머리 올린 통일보고서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한반도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경제학 교수가 쓴 통일에 대한 전망과 전개 그리고 작가적 상상력과 사실성의 구현이 절묘하게 부합된 새로운 형식의 소설작품이다. 허은 작으로 문예당에서 출간했으며 2천200원 가격은 8천5백원.

◇96 열린 미술전...예술의 전당 문화장에서 동아일보 문화센터/하계전시문화는 한국 미술의 자생력 증대 및 미술문화 향수 인구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한 주말 미술장터를 마련한다. 출품 작품들은 한 작가당 6백여 점으로 일 반대종이 순수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행사기간은 지난날 31일(토)부터 10월27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이다.

(추석주말 9월28일, 9월29일은 휴무)

◇제20회 서울연극제...지난 1일부터 10월15일까지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학전 블루 등 서울 시내 26개 극장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공식 참가작 12편, 자유참가작 24편 등 모두 36편이다. 한편 한국연극협회는 서울연극제를 축제형태로 치르기 위해 연극제기간 동안 7천원짜리 할인관람권 '서울티켓' 2만4천장을 발행한다.

◇'푸라미' 정기공연...홍익대 창작극연구회 '푸라미'가 제16회 정기공연을 오는 7일 홍대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 공연에서 푸라미는 14개 창작곡과 관공작품을 선보인다. 요금은 무료.

◇최근 문화잡지 분석 - '이매진' '이다'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빠른 문화환경에 독자 적응 유도

뉴미디어와 저항문화 등 새로움과 다양화 추구 돋보여

최근 문화관련 잡지시장계에선, 문화잡지들이 주류를 이루던 것에서 대중문화에서부터 문화현상분석, 하위문화 등 문화전반에 걸쳐 범위를 확장시킨 문화잡지가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중의 수요도 비례되는 양상이다.

문화잡지의 출간속도는 계간이 일례였던 것이 근래는 월간과 지성사의 무크지(잡지와 단행본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이다를 비롯해 월간지 '이매진' 등 다양해졌다. 이에 '이다'에서는 "빠른 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독자 앞에 자주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저항점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갱신해가는 것, 우리 스스로 새로운 소식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영화-문학지 일본도인 문화잡지 시장에 대중문화현상을 분석하는 문화지가 속속 창간돼 다양화된 소비자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기존의 계간지 '리뷰', '오늘예감', '좀 다른 성격의 '문화과학'등도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게 하위문화, 문화이론 등을 분석해 주고 있으며, 여전히 주요 구매층인 대학생 및 지식인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양상은 아마도 대중들이 주로 즐기는 영상매체라든지 각종 매체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가지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하는 의문을 가질만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마련된 영향때문인 아닐까. 그래서 문화평론가라는 전문인들이 평해놓은 것을 보면 '맞아'하며 동쾌함을 얻게 되고, 반면 더 나아가 '이건 아니다'

며 직접 독자가 병을 해보기도 하는 그런 대중심리의 일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 가장 최근 창간된 '이다'와 '이매진'에서 기획특집으로 각각 다뤄진 '뉴미디어'와 '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자.

뉴미디어로 인해 문화환경이 변화되고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여전한 화두로 삼고있는 있으며 논쟁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위문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에 관한 담론 등에 관한 얘기가.

탈 중심화를 지향하는 디지털 미디어로 재편되리라는 확산에 의해 '탈역사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대에는 정보의 과다, 종이책의 위기, 배끼기의 진정성, 사이버 스페이스 등 문화환경에 나타난다.

멀티미디어는 정보를 여과하지 못하고 있는대로 쏟아 붓는다. 따라서 정보의 과다과적문제에 크게 발상하게 된다. 이에 검색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권을 두지만 그것보다 예코는 "종이책의 가능성"을 보이고, "종이책이 정보의 과적상태에 개입하는 보충적 권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종이책 문화의 위기에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자시대의 미술에 대해서도, 60년대 초 상업 텔레비전에 반대하기 위한 대안체제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에서부터 디지털 시대 사이버 스페이스 속의 미술로 변화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맺는다.

록, 한국의 록에 대한 담론 또한 각종 잡지에서 부상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달 이매진에서는 특집으로

전생 신드롬

전생은 과연 존재할까.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과연 현생에서 이룰 수 있을까. 요즘 '전생'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책, 가요 등이 인기를 끌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전자시대에 느닷없는 '전생' '환생' 열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96년 한국영화의 회생작이라 할 수 있는 '연애나루 침대'는 전생의 사랑과 환생을 다루고 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1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애절한 사랑과 죽고 쫓기는 복수의 드라마이다.

인기 TV드라마 중에도 전생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눈에 띈다. SBS의 '8월의 신부'가 그중 하나다. 26년전 사랑을 잊어두고 억울하게 죽은 두 연인이 환생해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 서로를 감지하며 사랑을 되찾는다는 것이 기동 줄거리다. 드라마 초반부에 여주인공은 산속에서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8월의 신부'는 이처럼 전생과 환생을 오가며 얽히고 설켜는 갈등을 동시대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영 3주째에 접어들어 MBC특별기획드라마 '위험한 사랑'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주인공이 등장한다. 두 드라마의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모두 기억상실증 환자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얼마 전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게임 '환생'도 같은 경우다. 사고로 죽은 여자의 혼이 들어온 남자가 갑자기 여자행세를 하게 되는 과정의 연인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전생의 기억을 되살려 질병을 치료한다는 '전생요법'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의 임상기록을 모아 최근 '김영우와 함께하는 전생여행'이란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여기서 '신경구신 놀이인' '전생보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 전생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촛불

문화시평

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굴 반쪽이 영상 필름처럼 전생의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촛불 등의 영향으로 자의식 기능이 최대한 억제되면 무의식중에 갖고 있던 불안감, 긴장 등이 폭발적으로 반영돼 환상을 볼 수 있다"며 자아정체감이 약한 이들에게 중독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으로 반박하며 상대에서 본 환상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신드롬'은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할리우드를 휩쓸었던 공포영화의 드라마 클라 바람은 미국 사회의 성폭조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따라서 '전생 신드롬'은 시대적으로는 '세기말 증후군' 공간적으로는 90년대 한국사회의 자아상실감을 투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2천년대로 넘어가는 대사건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데 기존의 지식에서 합리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전생이나 예언관언사를 찾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괴담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각종 이념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억압당했던 감정이 90년대 들어 한꺼번에 표출되었는데, 배출된 욕구가 해방감을 선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유행했던 참새시리즈, 최불암시리즈 등도 한 시대의 무력감을 반영했다. 따라서 '전생신드롬'을 보면서 다시금 경계할 것은 상업적 문화주의의 기승과 정치적 무력화가 아닐까.

신미희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처장)

메아리

수레바퀴

▲새의 본능은 날아 다니는 것이다. '기위'라는 새는 조류이면서 날지 못했다. 긴 주둥이로 어두운 숲을 헤집어 벌레들을 먹고 산다. 본능을 포기하고 날개를 꺾어 버렸다. 그런가 하면 '발없는 새' 이야기도 있다. 바람속에서 잠을 자며 지상에 내려올때는 오직 한 번, 일생을 마칠 때이다. 본능을 위해 발을 꺾어 버렸다. ▲잠음이 있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의욕으로 산다. 젊음에겐 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과 타협보다는 그 자체의 모순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정열적이다. 기성은 연륜과 경륜을 통해 문제를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인생이라 가르친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체제 전복이라 한다. ▲여기 한 꺾여버린 잠음이 있다. 한창 커가던 그에게 기성은 인생의 무게를 모

르는 절없는 개성세대로 정의 내려 버리더니 급기야 체제유지를 위한다며 모순을 부르짖는 한 잠음을 독방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가 왜 소리치는지 본질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기회를 놓칠새라 실컷없이 이단의 수의를 덮어 씌운다. 수의는 언제 맞춰 놓았는지 꼭 맞다. 기성의 어른들은 매질을 시작한다. 자신들이 움직이는 제도화된 사회에 어긋나기 때문이란다.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다. 왜 매질을 하는지 그냥 이단아란다. 사회 압적인 존재로 뿌리 뽑혀야 한다. 그 사이에 왜 매질을 하고 왜 반항하느냐 물어주는 어른하나 없다. 큰 어른이 하는 매질이니 까 그냥 맞으란다. 모든 것에 '왜'가 없다. 그래서 젊음은 답답하다. ▲이렇게 기성이 말하는 젊음의 절없는 날개는 꺾어버린다. 그러나 무섭도록 한결같은 목소리로 큰 어른의 매봉을 빗내주는 기성의 순발력있는 단결된 힘을 보았다. 그안에 젊음은 두렵다. 어찌이리도 세상 어른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까. 이리하여 젊음은 깨달아 간다. 그러곤 모두가 원하는 착한 어른이 되어 가겠지...

(섬)

작은 편지

고대성 (2)

正道경영·초우량 LG
도약 2005

가자! 기회의 땅 LG로 -

2005년 세계 최고의 일터를 실현합니다
① 벤처사업 편

LG는 벤처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이라도 모험심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언제라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그들이 LG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줍니다.

꿈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터-
LG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LG / 인재개발위원회
TEL: 3773-2185 FAX: 3773-0588

LG는 연과 질 모두 최고를 이루어, 최고의 고객감동 브랜드를 만들어 최고의 부활을 지향해 오고 있다. LG의 2005년 실현 사업 중 하나인 벤처사업 실시한다